

한기수  
본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서평: 돈, 그 끝없는 유혹

황호찬 저, IVP 간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는 말씀처럼 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며, 그것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돈의 유혹과 끊임 없이 싸우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돈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놓여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일 것이다.

돈의 문제가 힘겹고도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 데 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는 서적들이 부족한 감이 있었다.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돈에 대해 설명된 외국서적과 번역서는 여럿 있지만, 우리나라 서적은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황호찬 박사의 「돈, 그 끝없는 유혹」은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고려한 돈에 관한 최근의 본격적인 기독교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그리스도

인의 구별됨을 서술하고 있고, 제 2장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돈에 대한 특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 3장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제 4장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소박하고 검소한 삶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돈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오해와 유혹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로 잡아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되는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돈에 대한 개념,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 책도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 경영학자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돈의 문제를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다룬 본격적인 기독교 서적으로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데 도와주는 지침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